

투데이



2012 런던올림픽 여자 양궁 개인 결승전이 열린 지난 2일, 결승에 진출한 광주시청 소속 기보배 선수의 부모와 강운태 광주시장, 조호권 광주시장, 시민 등 1000여명이 시청앞 광장에 모여 기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

양궁-기보배·장영술 총감독·박채순 코치, 펜싱-최은숙·김용률 총감독 (광주시청) (순천고) (광주시청) (서구청) (전남도청)

‘황금 주말’ 이끈 광주·전남 태극전사들

축구 4강주역 기성용(금호고)·배드민턴 銅 이용대(화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태극전사들이 ‘황금 주말’의 주인공이 됐다. 2일(이하 현지시간) 슷 오프까지 가는 살 떨리는 접전 끝에 이뤄진 기보배의 우승 현장에는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올림픽의 꿈을 도전한 이들의 기쁨의 눈물이 있었다. 마지막전에서 8점을 쏘며 가슴을 졸여야 했던 기보배는 우승이 확정된 뒤 올림픽을 위해 혹독한 시간을 함께한 장영술 양궁 총감독과 포옹을 하며 기쁨을 나눴다. 그리고 기보배가 달려가 맞은 이는 박채순 여자 양궁팀 코치였다.

림픽에서 펜싱 선수단과 함께 금, 은, 1, 동3개의 눈부신 성적을 냈다. 신아람의 오심 논란으로 출발했던 펜싱은 남자 사브르 대표팀의 시원한 한판 승부와 김지연의 극적인 뒤집기 쇼로 국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남여고를 졸업한 최은숙(광주서구청·남부대 태권도 경호화과 3년) 독은 순천고 출신으로 한국 최초로 시상대 위에 올랐다. 금호고 출신의 해외와 기성용은 올림픽 축구 사상 첫 4강의 주역이 됐다. 4일 주최국 영국과의 8강 승부에서 지동원의 첫 골을 도왔던 기성용은 피파리는 승부차기에서는 마지막 키커로 나서 ‘김심장’ 슈팅을 날리며

4강을 염원한 국민을 환호시켰다. 축구대표팀 사상 첫 메달의 키도 기성용이 쥐고 있다. ‘화순의 아들’ 이용대는 배드민턴에서 올림픽 두 번째 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재성과 남자 복식에 출전한 이용대는 결승 무대를 밟지 못했지만 4일 말레이시아의 쿠니키드-탄봉랑과의 3-4위 결정전에서 2-0 승리를 거두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2008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챔피언 이용대는 혼신을 다한 플레이로 ‘고의패배’로 어수선한 배드민턴 대회를 대회 처음이자 마지막 메달을 선물했다. /김여울기자 wool@

정부, 전국 대형마트 휴일 영업재개 제동

전국 시·군·구 공무원 대상 8일 조례개정 설명회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휴일 영업이 속속 재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시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재시행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 등에 따르면 오는 8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교육원에서 전국 시·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

식경제부 주관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설명회가 열린다.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들은 관련 조례의 미흡으로 전국에서 대형마트들이 낸 영업제한 집행정지 신청이 빈번해지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개정 조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현행 조례는 유통법상 자치구청장·군·구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제정 담당 공무원들이 모인 가운데 지

로 돕으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있다. 또 사전 통보와 의견 수렴, 결과 통보 등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 절차를 위반했다. 지식경제부 유통물류과 박동일 과장은 “자치단체의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고,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들이 있어 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면서 “10일 이상의 견 개진을 위한 시간을 준다든지 하는 조례 개정을 위한 지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사가도, 사망해도 기초노령연금 지금은 쭉쭉~

전남도, 목포시 감사 88건 적발 행정조치

목포시가 서울로 이사를 하거나 이미 사망한 노인들에게 2700여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계속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5일 “최근 목포시 감사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지원 부적정 등 88건을 적발, 훈계·경고 등 52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고 13여여원의 재정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목포시는 서울 동작구 등

지로 전출한 24명에게 지난 2008년 8월~2012년 5월까지 140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작구는 전산 확인을 통해 목포시가 이들에게 계속 기초노령연금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기간 별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른 지자체가 부당해야 할 연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대신 지급한 꼴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또 목포시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지급대상자 중 숨진 90명에게 1300만원 계속 지급해오다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이 외에도 규정을 어기고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에게 3100만원어치의 설명절 상품권을 나눠줬다가 적발됐고, 우수배수관 신설 공사를 하면서 수의계약해 훈계 조치당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공천헌금 의혹 현기환 檢 출두...현영희도 출두 임박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공안부장)는 4일 현영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관련기사 4면) 이에 앞서 공천헌금 수사 의혹을 받는 현기환 전 의원은 3일 사실 관계를 규명하겠다고 검찰에 출석했다. 현 전 의원에 돈을 건넸다는 의혹에 휩싸인 현영희 의원에 곧 출두할 뜻을 밝혔다. 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공안부장)는 4일 현영희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 의원의 전 비서 정모(37)씨가 새누리당 현기환 전 의원에겐 전달하려는 지시와 함께

헌금 3억원이 든 소풍백을 받았다고 주장한 현 의원 남편의 부산 법원등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현 의원과 가족 등의 은행계좌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돈의 흐름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현 의원의 남편 관련 계좌에서 수개월간 동침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포착하고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현 의원이 은행에서 거액의 돈을 찾아 차량에 싣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TV(CCTV) 화면과 돈을 담았던 은색 소풍백 사진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같은 압수물 분석작업이

끝나는 대로 현 의원을 소환해 공천헌금 제공의혹 전면에 대해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현 전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 뒤 곧바로 부산으로 내려가 부산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현 전 의원은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당시 통화기록과 일정표 등을 살펴보고 (의혹이) 완전 허위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정모씨를 무고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 의원이 이날 최고위 출석 직후 기자들을 만나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부인하면서 “빨리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뉴스 브리핑

인권위 ‘현병철 장애인 인권침해’ 조사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시민 진정인단이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위가 자체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인권위는 2일 열린 집행규제위원회에서 장하나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 5명과 시민 80여명으로 구성된 진정인단이 지난달 23일 현 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제출한 중증장애인 인권 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北 호우로 한달새 560여명 사망·실종

최근 평안도와 자강도 등지를 몰아친 집중호우로 북한 주민 560여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일 보도했다. 통신은 수해피해 집계 자료를 인용해 6월 말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한달 간 태풍과 폭우에 의한 큰물로 169명이 숨지고 144명이 부상했으며 실종자도 400여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또 8600여 동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4만3700여 세대가 침수돼 21만2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美상원, 탈북자 강제복속 제동법안 통과

미국 상원이 미국 행정부에 대해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속 조치에 제동을 걸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H.R. 4240)’을 의결했다. 미국 상원이 지난 5월 하원 의결을 마친 이 법안을 2일 (현지시간) 의결함에 따라 중국의 탈북자 강제 복속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법안은 발효된다.

2012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양성 수강생모집. 스포츠산업인력양성 3년연속(2009~2011년)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스포츠시설, 관광산업분야에서 국내·외적으로 활발한 연구 및 현장활동을 하고 있는 최고의 스포츠시설, 지역스포츠관광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현장중심적이고 실무 중심인 프로그램 제공. 접수기간: 2012년 7월 13일 ~ 8월 10일까지. 접수방법: 인터넷접수(홈페이지 http://sjp.mkopko.ac.kr 접수). 교육비: 10만원(신한은행 100-024-560464 예금주:목포대학교(한국지역스포츠추진구회)). 운영담당: 목포대학교 지역스포츠산업인력양성팀(061-450-6096).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2. 9. 7.(금) 09:10 (특급반) -월, 목, 아간반: 2012. 9. 3.(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2. 9.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2. 9. 8.(토)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금)~2013. 2. 16.(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토요일 오전반 09:10~13:00 (6개월 24주 96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반 09: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요일·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병과 후 교육감)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 기회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을 별초를 하지않아 함께 화된 묘, 메가 벗겨진 묘, 동절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 의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 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